

제 109 호

성 가정 축일

1974. 12. 29.

# 순정이

발행인	김 종택
인쇄인	범 석규
주간	조 성호
편집	한 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3498)

## 성탄메시지

김수환 추기경

###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세모와 함께 우리는 다시 구세주의 성탄을 맞이하였습니다. 1974년, 바야흐로 저물어가는 이 해는 한국 교회와 우리사회에 많은 시련과 문제를 던진 해였습니다. 교회내에서만 하더라도 사회정의의 실천하며, 목자의 사명에 충실하신 지학순 주교님의 투옥사건은 크고 심각한 파문을 던졌습니다. 안이하게 잠들고 있던 교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교회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논의되었고 아직도 그칠 줄 모릅니다. "교회와 인권문제" 혹은 "교회와 사회참여 문제"를 비롯하여 정교분론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치현실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일체 무관해야 하는지 혹은 아닌지가 아직도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이 정치에 의해 질식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교회는 침묵을 지켜야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자유와 언론자유가 심히 침해된 곳에 종교자유만이 따로 전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과 양심 혹은 법과 신앙이 충돌할 때에는 양심과 신앙이 우선하며, 인간에게 보다 하느님께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신입니다. 아뎀든 이런 문제들과 함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본질적이며,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가?" 하는 근본문제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재 정리도 해보지 못한 가운데 어느 듯 다시 성탄과 세모를 맞이했습니다. 이 성탄을 계기로 우리안에 보다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기를 기원해 다지 않습니다.

1974년은 어쨌든 여러가지 사건과 문제가 연거퍼 일어난 어두운 해였습니다. 새해는 보다 밝은 해이기를 무언중에 빌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밤에 시작되는 성년 즉 1975년은 정녕 교황성부의 말씀대로 인간을 위한 해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은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성년의 문이 열리는 이 성탄 밤에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나신 구세주께 빌어야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이 깊이 인식되고, 정치와 경제 또는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타락된 비인간화의 연속에서 해방되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자녀로 존중되고, 또한 그러한 신분에 알맞은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음 간절한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성자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구제를 위하여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포함한 전인적 자유와 구원을 위해 오셨고, 전세계를 참으로 하느님의 뜻에 맞갖은 의롭고 밝은 세계, 하느님의 나라를 새로이 창건하시기 위해 강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선포 벽두에 그리스도는 당신 고향인 나 자렛 회당에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묵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교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고,

억눌린 사람들을 놓아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다. (루카 4, 18~1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참된 인간해방과 인류구원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제 성탄을 맞으면서 이 밤에 강생하신 주님의 은총 모든 죄와 그 멍에에서의 참된 인간 해방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밤부터 성도 로마에서 시작되는 성년~1975년~은 진실히 전 인류 세계를 위해 화해와 평화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짐짓 그리스도께 귀의함으로써, 그분의 충실한 제자들이 되고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 서로 믿고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일년간 우리를 상호간에 있었던 일체의 불화와 불신을 말끔히 씻읍시다. 그것은 불신과 불화는 분명히 복음정신에 위배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밤에 회개와 통회의 정으로 마음의 가난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자들이 이 밤에 저 묵동들과 같이 소박하고 맑은 마음으로 말 구유에 강생하신 구세주앞에 겸손되어 무릎을 꿇는다면 "하늘 높은 곳에는 천주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이에게 평화"라는 천사들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베들레헴 초막 위에 빛나는 그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강생하신 구세주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와의 만남 없는 성탄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일 옛날의 매계관이나,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세이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아집과 독선에 젖어 다른 이들에게 범한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른다든지 여전히 오만과 위선, 부정과 불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를 벗어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이 밤에 나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뵈을수 있는지, 저 묵동들의 순박과 겸손을 지녔는지, 그 마음의 가난을 지녔는지」 자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강생하신 구세주께 우리 겨레와 전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겨레가 이 밤에 강생하신 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정의로운 민족, 일체의 속박을 벗어난 자유로운 민족, 통일된 민족이 될 수 있겠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수호를 위해 십자가를 진 자만이 참으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진리를 거스리는 일체의 거짓과 싸워 이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사회의 앞날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각각의 둔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일년이 비록 벅차고 고된 시련의 해였다 할지라도 진실을 추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빛을 향해 다가서야 합니다. 자유는 증진되어야 하고, 겨레는 더욱 번영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후퇴나 좌절 없이 꾸준히 진리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수난의 쓴 잔을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나 겨레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끝론 진리를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겨레와 역사 앞에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나왔습니다」(요한 18, 37)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와 겨레가 직면하고 있는 난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여기서 겨레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마저도 바칠 용의가 서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겨레에 대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시점에서 뚜렷이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자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한사라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 각자— 다같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아끼는 자는 잃는 것이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였고, 스스로도 그 길을 가시고,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명백히 분부하셨습니다.

교회는 아뭏든 이 겨레안에서 이 겨레의 역사속에서 구원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교회는 철두철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팔고타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그 생애, 가난하고 겸손하며 자비와 사랑에 넘친 그 삶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영예와 영광등 일체의 특권이나 특대를 버리고 우리가 봉사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술빚도, 기쁨도, 고통도,—다같이 나눌 줄 알아야 하며,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필립비 2, 6~8참조)

교회가 만일 이같이 진리에 입각하여 또한 의를 추구하고 사랑에 살면서 가난하고 겸손된 자세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온겨레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겨레의 앞날도 밝아지겠고,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역사속에 구세주 그리스도의 강생과 수난과 구속이 신비를 구현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성탄밤에 어두움을 밝힌 그 별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의 별빛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가 있는 곳에 구세주는 분명히 함께 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와 온 겨레에 강생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들, 육에 갈린 모든 이들에게, 그밖에 불우하고 의로운 모든 이들에게, 이 밤에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충만히 내리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1974년 성탄절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목자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구유에 누운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이 있더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집회서 3:3-7, 14-17a)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증계송**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이는 모두 복되도다.

복되여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닦는 자는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제2독서** (골로사이 3:12-21, 성서 P 461)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 생활.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는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 풍부히 너희 안에 계시리라, 알렐루야.

□**신자들의 기도**

1. 성 가정의 모범이신 주여! 성 가정 축일을 지내는 우리에게도 성 가정을 이룰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여! 지주교님을 위하여 기도 하오니 감옥에 있는 지주교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 오며 또 모든이가 일치하여 주교님의 옳은 뜻을 받들어 기도하게 하여주소서◎

3.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고, 묶인 사람에게 해방을 알려주시며, 눈먼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시고, 억눌린 사람들의 위로자이신 주여, 우리의 이 현실 점에서 정의구현을 위한 행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자들의 제일 중대한 의무임을 깨닫게 하여주소서◎

4. 주여, 74년도 저물어갑니다. 한해의 부족한 것은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어 새해엔 좀더 당신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며 생활하는 신앙인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

✦ 모든이에게 희망을 주시는 주 친주여! 이 암흑속에서의 74년을 보내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맞이하는 새해에는 광명의 한해가 되도록 모든이가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주 예수.....아멘

□**복음** (마태오 2:13-15, 19-23 성서 P 3)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예집트로 피하여라

(3) 성찬의 전례 □**불현** □**성찬식**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 명에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도다.

\* 순 정 이 산책 \*



지주교님을 감람에 두고  
해를 넘기는구나.

□ 양지쪽 □

□ 현실에 도전하는 성서 P 42 □



##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정의

「억눌린 자와 고아를 감싸 주어라.

낮은 사람, 없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라.

야위고 아쉬워하는 자를 구하여 주고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그를 빼내어주라. (시편 82:3-4)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인간이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활동은 절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을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똑같은 형이 없고, 생리적 구조, 심리적 작용, 정신적 특징이 모두 독특한 것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대치할 인간은 인간 역사 이후 미래까지도 없을 것이다. 이 인간 개성의 근원을 따질 때 교회는 초자연적인 절대존재에까지 올라간다. 따라서 인간개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큰 사명이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본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각자 자기만이 가지는 소질로써 자기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천직이 있더라도,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며, 사회속에 남아 사회 속에서 배우고, 연고, 움직이며 사회 안에서 인격체로서의 완성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또 사라지는, 사회적 동물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그 충족한 발달은 개인의 근본적인 권리가 사회안에서 충분히 발휘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갑수 주교, 「사회 정의와 경제적 정의」에서 (창조 72년 5월호)

크리스찬과 그들의 사목자들은 가끔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그들의 권좌에서 내쫓기며, 비천한 사람들이 들어 높이지고, 부유한 자들이 빈손으로 돌려 보내지고, 곤궁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의 손이 제워질 때 전능하신 하느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계속해서 완전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과 모든 계층 사이에 있어야 할 사회적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찬과 선의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보다 공평한 분배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특권이나 개인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때도 있는 것이다. 「제 3세계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서한」 (Between Honesty and Hope)에서

## 요십이 (75) 김병오



### □ 신간안내 □

하루 한순간을

홍윤숙저 1,200원

마더테레사

멜컨 마그렛즈 400원

### ◆ 이주간의 성경 ◆

30(월) 독서 (요한 1서 2:12-17. 성서 p 543)

복음 (루 가 2:36-40 성서 p. 128)

31(화) 성 실베스트르 1세 교황

독서 (요한 1서 2:18-21 성서 p 544)

복음 (요한 1:1-18 성서 p. 202)

1(수) ◎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

1독서 (민수기 6:22-27)

2독서 (갈라디아 4:4-7 성서 p 432)

복음 (루 가 2:16-21 성서 p. 127)

2(목) 성 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

독서 (요한 1서 2:22-28. 성서 p 545)

복음 (요한 1:19-28 성서 p. 203)

3(금) 독서 (요한 1서 2:29-3:6 성서 p 545)

복음 (요한 1:29-34 성서 p. 203)

4(토) 독서 (요한 1서 3:7-10 성서 p 546)

복음 (요한 1:35-42 성서 p. 204)



파이렉스·실크벽지  
집칠·도장청부

**대동**  
지을 페인트상사

전주 동부시장동(25986)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성심당 한약방

※ 신자들의 집 ※

대지 사진관(2층)

이삼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6544

◎ 교형 여러분의 집 ◎

현대 사진관

김낙준(요한)

오거리 한전 옆

전화 6289

제 2·5 지구 각 분당 소식

1. 교도소 위문: 성탄축일 오후 2시에 전등신자들이 마련한 타올과 시루떡을 가지고 위문, 메아리 합창단과 함께 재소자들과 따뜻한 자리를 마련하였음.
  2. <숲정미> 분당 공지사항은 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중·고등학생 치명탈 원고 제출 요망: 12월 31일까지.
  4.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 ① 신년 교례회 (주교님을 모시고 신년하례)
      - 때: 1975년 1월 1일 오전 11시 장소: 가톨릭 센터 강당 회비: 700원
    - ②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새해를 보다 계획있게 준비 하기 위하여 본 센터에서는 2회에 걸쳐서 공동체 목상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어오니 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제 1차 공동체 목상회
    - 참가범위: 성직자, 수도자, 직업인, 때: 1975년 1월 1일 오후 2시-1월 3일 오후 5시까지 (2박3일)
    - 장소: 가톨릭 센터 참가비: 2000원 (숙박비) 기타 경비는 센터에서 증당하겠습니다
  - 제 2차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
    - 참가범위: 성직자, 수도자, 일반평신도, 참가비: 2,000원 (숙박비) 기타경비는 센터에서 증당하겠습니다
    - 때: 1975년 1월 9일-1월 11일까지 (2박3일) 장소: 전주 가톨릭센터
  5. 파티마 모후 꼬미씨을 연중 친목회 (레지오 마리에 활동 단원과 협조 단원): 75년 1월 1일 13시 30분 가톨릭 센터 강당에서. 각 P별 여중(시상있음). 전등, 서학, 복자
    - ① 불우한 이웃 돕기 1일 다실 (1월1일 오전 시~오후 시, 전주 가톨릭센터, 주최: 제신청 브레시디움)
- 여러분이 마시는 한잔의 차가 불우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중양)

전화 ②2651 주일 신부 이대권  
 ③3874 보좌 신부 서석원  
 사도 회장 사도 회장 김영진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사도회 임원, 구역장 및 반장 전원 참석 요망.
  2. 꾸리아 연중친목회: 1월2일 오전10시 (강당 회의실)
  3. 방지겨 삼회: 1월 4일 오후 2시반
  4. 성심 부녀회: 1월10일로 연기함.
- 성탄 봉헌금: 100,150원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일 신부 함승천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조해형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후
  2. 재속 형제회 월례회 다음주일
  3. 성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 남노 박춘근 7,000. 중노2가 김병주 5,000. 다리공소 박남태 5,000. 중노1가 방소자 5,000. 남노 이재진 3,000. 유아동 정준모 3,000. 중노1가 김준석 3,000. 남노 박귀남 1,000. 남노 안재홍 1,000. 중노1가 임종섭 1,000. 신원공소 신마리아 1,000.
- 주제 35,000원 누계 1,883,152원  
 군중성탄 위문금 3,000원 지주교님 성금 3,060원  
 성탄헌금: 50,010원

(덕진)

전화 ②8082 주일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사도 회장 김종환

1. 어린이 성세식: 12. 29 저녁 7시 미사후
  2. 병자 판공성사
- 병자인 관계로 판공성사를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신부님께서 출장 판공성사를 드립니다.
3. 빙고 게임을 후원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성탄 밤미사 성금 18,021원은 덕진 본당내 불우 이웃에게 회사. 성탄미사 헌금 25,051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일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이거영

1. 축영세 (26명)
    - 착하고 열심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① 주일학교 학생에게 노트와 연필 기증: 김글라 라자매가 6,000원 ② 목재 기증: (말구유 만듬) 박순규(바오로) 형제가 15,000원 기증
    - ③ 성탄행사에 쌀 기증한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말)
- ※ ①미사주 1년분 불린 (임 마리아) 6,000원  
 ②제병 3년째 불린 (김 글라라) 30,000원  
 ③성초대 3년째 불린 (유마리아) 6,000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성미: 2말8되 누계 342말

(복자)

전화 ②5238 주일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조성호

1. 판공성사 누락자는 연말에 보시도록
  2. 이웃 돕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 사도회 월례회: 저녁 미사후
  4. 신음조합 월례회: 오늘 미사후
  5. 상관 공소회합(의암리) 31일 (마치리) 1월 1일 (신리) 1월 2일
- 축결혼: 1월5일 오전 11시30분  
 신랑 이 덕남군 신부 정양순(노니가)

(전동)

전화 ③3222 주일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정승림  
 사도 회장 사도 회장 이현재

1. 글라라 형제회 월례회: 오후 1시30분
  2. 성가회 창립 총회: 오늘 오후2시 사제관
  3. 학생미사(토) 오후 4시 주일10시미사(미사후교리반)
- 숲정이 은인 고마태오(수장) 남노송동 삼거리 국민약국  
 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 정 신부  
 성탄헌금 12,813원

\* 각 분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분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창 기 계 부 안 신 태 신 인 태 인 정 입	봉헌금을 완납 함시다 사도회 월례회	4,900원	제 3 지구	창인동 황 등	사도회 임원 개편 축 오룡공소 준공	32,154원
				제 4 지구	중 앙 동 송 진 복 자 동 서 학 동 전	사도회 월례회 사도회 월례회 어린이 성세식 성탄시여러가지 기증한분들께 감사 사도회 월례회 성가회 창립 총회	50,312원 23,462원 8,960원 19,555원 15,052원 50,340원
제 2 지구	대 야 문 울 동 동 동 동	어린이 전교회 가입 요망 J.O.C 군산 색슨 일반회 중년 성시간 및 성제강부 중·고등학교 피정	3,800원 35,058원 24,420원 14,200원	제 5 지구	남 원 주 장 계 진 안	영세자에게 축하 드립니다 사도회 임원 회의 회장단 회합	14,430원 7,405원 7,960원
제 3 지구	고 산 금 산 여 산 주 현 동	사도회 임원 및 청년회 망년회 망년 감사기도 및 성제강부 공소 회장단 회합 가정 평화 기원 미사	2,400원 11,820원 3,880원 9,520원				